

iM FX Brief

원화 강세 속도, 기대 이상으로 빠르다

FX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주간 동향: 외환시장 개입 여진과 미 고용지표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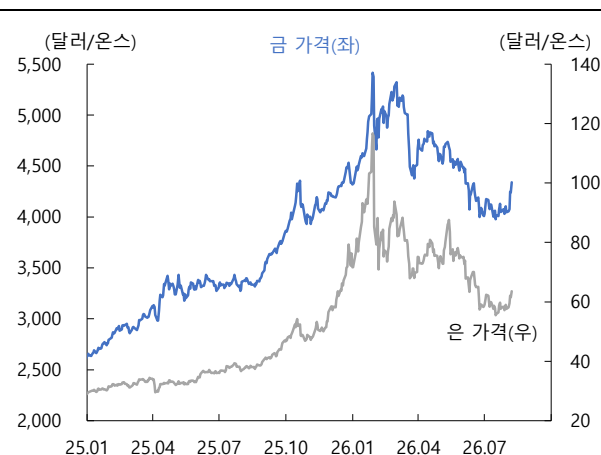
- 미일 외환시장 개입 공조 여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7월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화 약세 폭이 확대됨. 7월 비농업일자리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인상 확률이 크게 낮아짐
- 유로화는 달러 약세 영향과 유가 하향 안정에 힘입어 강세 기조를 이어감
- 달러-엔 환율은 달러 약세에 불구하고 전주대비 소폭 상승, 즉 엔화는 약보합세를 기록함. 외환시장 추가 개입 경계감과 엔화 재약세를 기대하는 심리가 팽팽이 대립하면서 달러-엔 환율은 157~158엔대에서 등락을 보임
- 위안화는 달러 약세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임
- 호주달러도 달러화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위안화 강세 영향으로 강세폭이 확대됨
- 원화의 상대적 강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 베네통 미 재무장관의 이례적인 원화 언급과 더불어 달러 약세 현상 등으로 달러-원 환율이 급락함

	8월 7일 증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5	-0.38	1.24
유로-달러	1.156	0.28	-1.59
달러-엔	157.8	0.23	0.67
역외 달러-위안	6.74	-0.14	-3.34
호주달러-달러	0.71	0.68	5.90
달러-원	1,409.5	-1.81	-2.43

금주: 달러-원 환율, 1,300원대 진입 가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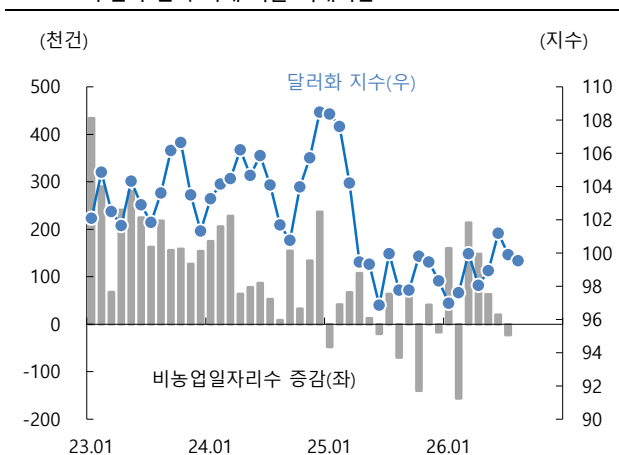
-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9월 FOMC회의에서 금리인상 확률이 낮아진 가운데 이번주 발표될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만약 7월 소비자물가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9월 FOMC회의에서 금리동결 전망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임. 이는 달러화의 추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눈치보기 장세에 진입한 달러-엔 환율의 방향성도 여전히 글로벌 외환시장 흐름에 중요 변수임
- 7월 미국 소비자물가 결과에 따라 달러-원 환율의 1,300원대 진입 여부가 결정될 것임. 다만, 달러-원 환율이 1,300원대 진입하더라도 추가 하락보다는 단기적으로 1,400원을 중심으로 한 등락이 예상됨
-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380~1,430원으로 예상함

그림1. 달러 약세 영향으로 금 및 은 가격이 동반 강세를 보임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7월 비농업일자리수가 예상 밖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지표 부진이 달러 약세 폭을 확대시킴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